



유로존 보험산업의 수익성 개선

이정환 선임연구원

- 2013년 11월 27일 발표된 유럽중앙은행(ECB) 재무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은행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¹⁾
 - 2013년 2/4~3/4분기 유로존 보험산업의 ROE는 같은 기간 은행산업 ROE의 약 2배를 기록하였음.
 - 주요 40개 복합은행그룹의 ROE 중간값(median)은 2013년 2/4분기 6%, 2013년 3/4분기 4% 인 반면 같은 기간 주요 22개 보험회사의 ROE 중간값은 11%, 8%임.
 - 유로존 보험산업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서 모두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임.
- 유로존 보험산업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조사대상 보험회사의 절반인 11개 보험회사 합산비율이 2013년 3/4분기 까지 평균 95%를 기록하였음.
 - 보험회사 합산비율의 중간값은 2013년 1/4분기 94%, 2/4분기 96%, 3/4분기 95%를 기록함.
 - 다만 2013년 2/4~3/4분기 중부 및 동유럽에서 발생한 폭풍과 홍수로 일부 보험회사의 보험영업 이익이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2013년 3/4분기에는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로존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증가율의 중간값(median)은 2013년 1/4분기 2.3% 수준에서 2/4분기 2.5%로 상승하였다가 3/4분기에는 0.0%로 하락하였음.²⁾
- 투자영업에 대한 저금리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6월에 발표된 ECB 재무안정보고서에서는 저금리 지속으로 유로존 보험산업의 투자수익 감소를 우려하였음.

1) 은행산업의 경우 18개 유로존 은행과 22개 글로벌 은행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험산업의 경우 22개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 회사를 대상으로 함, 22개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4조 8천억 유로이며 유로존 전체 수입보험료의 약 63%를 차지함.
 2) 연간 성장률(percentage change per annum).

- 투자수익이 감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 ECB는 유로존 보험산업이 ALM을 통해 채권수익률 변동 리스크를 헤지하는 등 저금리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함.
- 2013년 주요국 국채수익률이 상승하면서 2013년 2/4~3/4분기 유로존 대형 보험회사의 자산대비 자본비율은 하락하였음.
 - 22개 주요 보험회사의 경우 자산대비 자본 비율의 중간값(median)은 2013년 1/4분기 16.7%, 2/4분기 13.8%, 3/4분기 13.1%로 하락하였음.
 - ECB는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국채수익률이 상승할 경우 자산대비 자본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시가평가가 이루어지는 자산은 높아진 국채 수익률로 가치가 낮아진 반면 부채는 시장가치로 평가되지 않아 자본이 부족해 질 수 있음.
- ECB는 저성장-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보험산업의 적절한 대응으로 2013년 4/4분기 및 2014년에도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22개 주요 보험회사의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 평균이 2013년 2/4분기 3.3 유로, 2013년 3.4 유로, 2014년 3.5 유로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로 인한 파산 가능성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수입보험료도 중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보험산업의 경영성과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임.

(ECB(2013. 11), Financial Stability Review)